최근 여수 돌산대교에 환상적인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됐다. 112개의 전구로 꾸며진 돌산대교 야간조명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매일 색깔과 모양이 변화돼 관광객과 주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여수지역 굴 껍데기 처리 골머리

양식 어가들 매년 2만여t 해안가 방치

여수지역 굴 양식 어가들이 패각(굴 껍데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년 여수지역의 패각 발생량은 5만여t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재활용되는 양은 3만여t으로 나머지 2만여t은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다.

일부 어민들은 자체 구입한 패각 분쇄기로 처리한 뒤 자신의 밭이나 논 등에 뿌리고 있지만 양이 많을 경우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다.

현재 여수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13대의 패각 분쇄기가 보급돼 있으나 산더미처럼 쌓인 패각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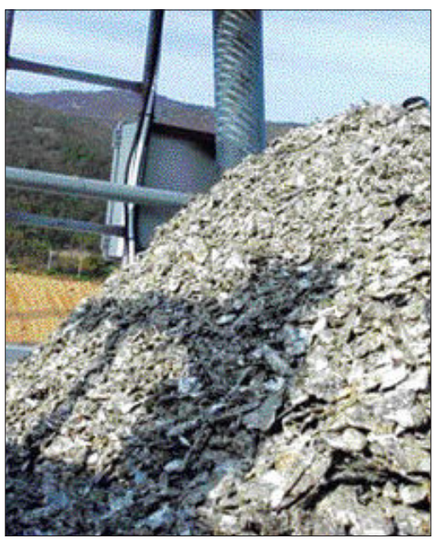
지역내 패각 야적장 6곳도 악취 등을 이유로 최근 모두 폐쇄된 상태여서 결국 어민들은 해안가와 부두 주변 등에 패각을 쌓아 놓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고수온으로 여수 관내 양식 굴 70%가 폐사되면서 패각 처리 문제는 해당 피해 어민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폐사 피해를 본 어민들은 아예 패각을 바다에서 건져 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어민 김모(65·돌산읍)씨는 "인건비를 들여 패각을 건져 낸다 해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이래저래 고민"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시비를 포함해 4천300만원의 패각 처리비용을 마련했지만 올해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굴 패각을 재생해 사용하는 패화석 비료의 정부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처리 비용 일부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년 여수지역에서만 2만여t의 굴 껍데기가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마을 도로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굴 껍데기.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노관규 순천시장

"평생학습도시 건설 역점"

민선 1, 2, 3기 순천시장들이 모두 '불명예 제대'한 상황에서 지난해 7월 민선 4기 시장으로 취임한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정해(丁亥)년 새해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취임 후 지난 6개월이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4년 순천시가 가야할 방향을 정하는 시기였다면 정해년은 그 초석을 다지는 해이기 때문이다. 노 시장은 "새해는 시정운영 방향을 '행복행정'으로 정하고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희망순천 2020' 원년

노 시장은 "올해는 실질적인 민선 4기 첫해이며 '희망순천 2020'을 추진하는 원년"이라며 "1천300여 공직자와 함께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꿈과 희망을 주는 전국 제일의 평생학습도시, 물과 숲이 어우러진 생태 정주도시,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을 함께하는 자치도시를 시정 목표로 설정하고 7가지 실천전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노시장은 올해 모든 시민들이 만족하는 복지도시와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고령 인구가 2만7천여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현실에서 노인복지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현안이다. 100세 이상 노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수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마련했다.

노인 1천여명 일터 마련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실버연주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특히 17억9천여만원을 들여 1천 명의 노인들에게 일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노 시장의 구상이다.

교육도시 건설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돼 우선 올해는 평생학습 총괄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책의 날'을 제정해 시민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적의 도서관도 4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또 24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60개소로 확대하며 '툇마루 도서관' 등을 확충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도시를 조성한다.

원도심 살리기 가속

원도심 살리기 시책은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펼쳐진다. 재래시장을 특성화하고 지난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공장 건설에 착수한 (주)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의 연관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노 시장은 이같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정책 입안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자치도시를 실현해 갈 계획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여수 박람회 유치 만화책 나온다

市, 영문 2만부등 10만부 펴내기로

2012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홍보를 위한 만화책이 제작된다.

여수시는 이달 중 순천대학교 만화예술과에 제작을 의뢰, 60페이지(컬러판) 분량으로 영문 2만부 등 총 10만부를 제작할 예정이다.

내용은 우리나라 및 박람회 유치 후보지인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권 관광지를 소개하고 세계박람회 여수 개최 이유 및 기대효과 등을 재미있게 표현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월께 만화책이 나오면 국내 학교와 관공서, 기업체, 국내 상주 대사관과 BIE(국제박람회 기구)회원국, 해외 교포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전국 150여팀 광양 동계 전훈 작년보다 20개팀 늘어

광양시가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각광 받고 있다.

광양시는 1차(5일~15일)로 축구, 태권도, 씨름, 육상 등 전국 118개팀 3천여명이 광양 공설운동장 등에서 동계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2차(29일~2월 10일)로 축구, 태권도 등 30개 팀이 훈련을 계획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20개 팀이 광양을 더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5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 4회 스토브리그 축구대회'에 50개 팀이 참가해 그간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특히 전국 각지의 축구팀이 광양을 동계 훈련지로 선택한데는 광양제철고와 제철남초 등 축구 명문학교와의 교류전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다 최근 잔디구장 2면이 완공되는 등 광양지역 축구 인프라가 잘 갖춰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양시는 이번 동계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에 30억원 정도의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 특산품 제공 등 행·재정 지원을 펼 계획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작년 여수·광양항 물동량 크게 늘었다

1억9천5백만t 처리 전년비 8% 증가

지난해 여수항과 광양항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항과 광양항에서 처리된 물동량은 1억9천500만t으로 2005년 1억8천만t에 비해 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같은 처리 물량은 부산항(2억9백만t)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수치다.

항만별로는 여수항이 270만t, 광양항은 1억9천300만t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6.6%와 8.7% 증가했다.

광양 컨테이너부두 처리 물동량은 176만TEU로 전년 대비 21.9% 증가해 국내 항만중 최고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컨테이너부두 여유 부지를 활용한 자동차 수출·입 환적 처리물량도 41만3천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화물별로는 유류 8천500만t, 철광석 2천700만t, 철재류 1천400만t, 유연탄 1천300만t, 시멘트 400만t 등이다.

또 여수항·광양항 입출항 선박은 5만3천700여척(컨테이너선 6천6백여척 포함)으로 전년보다 240여척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항선이 줄어든 반면 외항선은 1천200여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청은 올 예상물동량을 지난해 대비 7% 늘어난 2억800만t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컨테이너 물량은 25%증가한 220만TEU를 목표로 설정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